

전국 낚시인 발길…강진 마량면 경제 활력소 ‘톡톡’

피싱마스터스대회 체류형 소비 촉진

상금 지역화폐로…경제 선순환 구조

관광지·숙소 등 가족 단위 관광 확산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가 전국 낚시인들의 발길을 이끌며 마량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피싱마스터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숙박·식음료·주유·관광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소비를 촉진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만들고 있다.

이 대회는 민선 8기 핵심 전략과제인 ‘바다낚시 어선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를 시작점 삼아 지난해 ‘강진피싱마스터스’라는 고유 브랜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후 대회는 규모와 인지도를 키우며 전국 낚시대회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강진군수배 감성동선상낚시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총상금 2억원에 참가자 1~30위까지 폭넓은 시상, 상위 1~5위 상금의 10%와 6~30위 상금을 전액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파격적 방식은 대회만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는 참가자들의 경제적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방문화를 자연스레 끌어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올해 열린 ‘강진 피싱마스터스’는 총 5회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6천100여명의 관광객과 883명의 참가자가 강진을 방문했다.



지난 9월 개최된 2025 강진피싱마스터스 아오백스컵 주꾸미 선상낚시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주꾸미를 낚아 올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그중 약 25%가 가족·지인과 함께 숙박한 것으로 나타나 대회가 가족 단위 체류형 해양레저 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체류 흐름은 식당·카페·숙박업소·주유소·관광지 등 지역 경제 전반의 매출로 자연

스럽게 이어졌다. 기상 악화로 일부 일정이 취소되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참가자와 동행 인원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대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지방문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 강진피싱마스터스는 낚시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마노·아오백스 등 낚시용품 브랜드를 비롯해 혼다·SDN·화웨이 등 선박·항해 관련 업체가 후원에 참여하며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레저문화 생태계가 조성돼 침체된 지역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국 낚시인들이 강진 마량을 찾으며 낚시대회는 물론 동행 가족들의 관광·소비가 함께 이뤄지고 지역경제 전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대회를 준비해 해양레저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섬진흥원 삼학도 부지 확대 계획 철회하라”

목포환경운동연합, 市에 촉구

“미래 세대 위한 온전한 복원을”

목포 지역 환경운동 단체가 목포시의 섬진흥원 삼학도 부지 확대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4개목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불통 시장대행 조석훈 부시장은 섬진흥원의 삼학도 부지 확대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은 “목포시가 삼학도 근린공원 부지 중 1만8천577㎡(약 5천619평)의 면적을 한국섬진흥원 복합문화공간 시설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2030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전남도에 제출하며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간격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 동안 약 1천700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훼손된 삼학도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기울였던 모든 행정·재정적 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행태”라고 규탄했다. 삼학도는 시민들이 쉽터로 애용해 오다 1968~1973년까지 연륙공사와 간척사업으로 육지로 변모했고, 매립을 위해 산이 깎이는 등 자연경관이 훼손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2000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목포세관, 해양경찰서, 한국제분, 한국냉동 등 기존 공공기관과 사기업 시설을 이전시키는 등 부지 보상 및 시설물 철거에 수백억원을 지출했다. 연합은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민, 시민단체 등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

고 주민공람 등의 요식행위를 거쳐 변경안을 제출했다”며 “삼학도 공원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를 위해 김원이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시에도 여러 차례 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요청하는 등 소통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목포시는 섬진흥원의 원도심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온전한 삼학도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삼학도를 지켜내고 국민 혈세를 아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삼학도 복원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무안YD페스티벌’ 청년 참여 축제 자리매김

개막 공연·소망램프 점등식 등 호응

청년부 ‘웹보스크루’ 댄스대회 우승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찬 ‘제5회 무안YD페스티벌’이 성료된 가운데 청년이 참여하는 대표 축제 자리매김했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남악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무안YD페스티벌’을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기획·참여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축제 첫 날인 지난 14일 개막식에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소망램프 점등식’이 축제의 서막을 열었고, 이어 에일리·민경훈·케이시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둘째 날에는 남악 거리 전체가 퍼레이드 열기로 들끓었다. 해병대 군악대를 선두로 관내 청년단체와 대학생·고등학생, 읍면 주민들이 각자의 색깔을 담은 티셔츠와 응원 도구를 들고 행렬을 이어가며 웅장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YDF 전국 댄스경연대회’에서는 전국 댄서들이 기량을 펼쳤으며, 청년부 ‘웹보스크루’, 성인부 ‘G.O.T.’ 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해 100만원·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근 남악중앙공원에서 열린 ‘제5회 무안YD페스티벌’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한 팀이 무대 위에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마지막 날인 16일 열린 ‘YDF 전국 밴드경연대회’에서는 최종 대상을 차지한 ‘뎀(Deem)’이 상금 400만원을 받았으며, 이어 펼쳐진 락페스티벌에는 국가스텐, 체리필터, 엔본의일 등 유명 밴드가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차 산업 체험관 ▲길거리 농구대회 ▲국화전시 ▲드레스코드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도 진행됐다.

특히 ‘일회용품 없는 축제장’ 운영은 친환경 축제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텀블러를 가져온 관람객을 위한 리워드 이벤트가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YD페스티벌은 청년의 열정이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해남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자’ 모집

내달 11일까지…월 최대 110만원 지원

해남군은 18일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조기에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 대상은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독립 영농 경력자 3년 이하이거나 영농을 계획 중 이들로, 서면 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업 지침과 세부 정보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에는 영농 경력에 따라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최대 3년간 지급된다. 또한 선정 연도를 포함해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후계농 육성자금(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수산물 구매하고 혜택 받아주세요”

19~23일 함평천지전통시장서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함평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촉진하고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함평천지전통시장(사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해 소비자 혜택도 강화했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함평=김연수 기자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교환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교환처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영광군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대책’ 가동

전기 안전 점검·자율 안전 관리 독려

영광군이 겨울철 난방기 사용 증가로 축사 내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예방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축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후 전선 ▲문어발식 배선 ▲과부하 사용 ▲난방기 과열 등 주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온열 전구와 온풍기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기제품 과부하 방지, 전선 상태 수시 확인 등 기초 점검 실천을 안내한다. 군은 축사 내부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필

수 예방장비 설치를 권장하고 전기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청소·정리 요령 등 농가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법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축사 내 먼지·이물질 제거, 누전 차단기 점검, 노후 전기설비 정비 등 자율 점검을 독려하고,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전 수칙을 안내해 자율 안전관리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평소 전기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군은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진도군 올해 마지막 ‘행복 아카데미’ 열린다

오는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성용 신부·성진 스님 초청



진도군은 18일 “오는 21일 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하성용(사진 왼쪽) 신부와 성진(오른쪽) 스님을 초청해 올해 마지막 ‘진도 군민 행복 아카데미’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 주제는 ‘마침과 시작’으로 서로 다른 종교의 길을 걸어온 두 연사가 인생의 순환과 전환점에 대해 각자의 관점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하성용 신부는 삶의 섭포 속에서 마주한 ‘끝맺음의 용기’를, 성진 스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비움의 지혜’를 주제로 군민들과 마음을 나눈다. 두 사람은 종교적 배경을 넘어 누구나 공

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군민 여러분께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로 다른 길에서 얻은 두 연사의 깊은 성찰이 일상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